

10구 승부 김선빈·투혼의 에이스 네일...서로에 '엄지척'

김선빈
 “네일의 스유퍼는 정말 놀라워
 그냥 눈 감고 안 칠 것 같아”
 네일
 “선빈의 야구 센스 대단해
 같은 팀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김선빈



네일



양현종

2024 KBO KOREAN SERIES 신한SO-Bank
 4차전 승리의 주역 김선빈과 제임스 네일이 서로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9-2 승리를 거뒀다. 앞선 3차전에서 삼성 레이스의 후투에 막힌 KIA는 홈런 포 4방을 허용하면서 2-4 패를 기록했었다.
 타격감을 깨운 삼성을 상대로 적지에서 연패를 당하면 시리즈 전체적인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많은 의미가 있던 4차전, KIA는 김태균의 만루포로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고 'V12'에 1승을 남겨냈다.
 이날 김태균이 프로 첫 만루포를 장식하면서 데일리 MVP에 선정되는 등 가장 빛난 선수가 됐지만, 김선빈과 네일도 승리를 부른 주역이었다.
 4차전 승리의 관건은 원태인 공략이었다. 여기에 '최고참' 최형우가 허리 통증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면서 이범호 감독은 고민과 고민을 이어갔다. 고심 끝에 내놓은 전략은 '2번 김선빈'이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4타수 1안타로 김선빈이 열세였지만 한국시리즈에서 가장 좋은 감을 보여줬던 만큼 2번에 전진 배치됐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무사 1루에서 1회 첫 타석에 선 김선빈은 10구까지 가는 끈질긴 승부를 하면서 원태인을 흔들었다. 그리고 좌측 펜스 때리는 2루타까지 만들면서 선취점 발판을 놓았다.
 김선빈의 커트쇼로 출발이 좋지 못했던 원태인은 이날 어깨 부위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3실점을 한 뒤 3회 1사 만루에서 일찍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KIA는 이 이닝에서 김태균의 만루포로 7-0까지 점수를 벌리면서 승기를 잡았다.
 승리를 지휘한 이범호 감독은 경기 끝난 뒤 '원태인의 구위가 좋았는데 김선빈이 2번에서 공을 많이 던지게 만들어 줘서 이길 수 있었다'고 초반 기싸움을 이끌어준 김선빈의 공로를 이야기했다.
 마운드에서는 제임스 네일의 혼신의 투구가 승리를 불렀다.
 8월 24일 NC전에서 턱관절 골절 부상을 입으면서 한국시리즈 출전이 불투명했던 네일이지만 우승을 위한 집념으로 재활을 끝내고 '가을잔치'에 동행했다.
 부상 복귀전을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로 치른 네일은 이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피칭을 하면서 5-

1 승리의 주역이 됐다.
 그리고 네일은 비로 경기가 하루 밀리면서 4일의 휴식 뒤 26일 4차전 선발로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이번에는 6.2이닝을 소화하면서 2명의 주자에게만 홈을 허용하고 승리투수가 됐다.
 이범호 감독은 "네일이라는 선수가 없었으면 올 시즌 힘들었을 것 같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최선을 다해 던져서 5회 끝나고 힘이 없다고 했다. 세 타자만 더 던져주면 바꿔주겠다고 했더니 흔쾌히 해준다고 했다. 최선을 다해 던져줬다"고 이야기했다.
 집중력과 투혼으로 3차전 승리를 이끈 김선빈과 네일도 서로에게 찬사를 보냈다.
 김선빈은 '네일의 스유퍼를 보는 상대 타자라면'이라는 질문에 '눈 감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만 했다. 스유퍼는 눈 감고 안 칠 것 같다"며 삼성 방향이 틀렸을 때 스유퍼에 갑판사를 내뿜었다.
 '김선빈을 타자로 만난다면?'이라는 질문에 '같은 팀이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웃은 네일은 "야구에 대한 지식과 센스가 놀라울 정도다. 그는 뛰어난 베테랑 타자"라고 이야기했다.
 /대구=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V12 완성 위해 5차전 마운드 오른다

삼성 이승현과 선발 맞대결

2017시즌 KBO 역사상 첫 통합 MVP에 등극했던 양현종이 타이거즈의 V12를 완성하기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KIA 타이거즈가 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한국시리즈 5차전을 치른다. 우여곡절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진행됐던 1차전에 이어 2차전 승리를 쟁겼던 KIA는 지난 25·26일 삼성 안방에서 열린 3·4차전에서는 1승 1패를 기록했다.
 7전 4선승제로 진행되는 한국시리즈 제패를 위해 1승을 남겨놓은 KIA는 2017시즌 우승 주역인 양현종으로 '마지막 승부'를 펼친다. 베풀 끝에 삼성은 이승현을 5차전 선발로 예고하면서 좌완들의 어깨에 두 팀의 운명이 걸리게 됐다.
 이름과 경험으로는 단연 양현종이 앞선다. 양현종은 올 시즌 10년 연속 170이닝, KBO 최다 탈삼진 신기록 등을 달성한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다.
 2017시즌 한국시리즈에서도 양현종은 가장 빛나는 선수였다. 양현종은 두산 베어스와 한국시리즈 2차전 선발로 나와 완봉승을 거뒀고, 5차전에는 마무리 투수로 등판했다. 양현종은 7-6 승리를 확정하는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면서 타이거즈 역사상 11번째 우승 순간을 장식했다.
 양현종은 7년 만에 맞는 한국시리즈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다.
 지난 23일 2차전 선발로 나선 양현종은 이 경기에서 8개의 안타는 내줬지만 5.1이닝을 2실점(1자책)으로 막고 데일리 MVP에 올랐다.
 그리고 비로 일정이 하루씩 밀리면서 28일 경기에서 다시 선발로 출격한다.
 양현종 뒤에는 든든한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다.
 KIA는 지난 26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과의 4차전 승부에서 김태균의 만루포와 소크라테스의 투런포 등 장단 13안타를 터트리면서 9-2 승리를 거뒀다.

감 잡은 방향이와 함께 불펜도 든든하다. 올 시즌 KIA는 장현식-전상현-정해영으로 이어지는 든든한 필승조로 정규시즌 1위를 달려왔다. 2년 차 좌측 투구의 날다른 배짱과 함께 선발과 불펜 전천후 활약이 가능한 김도현과 황동호도 버티고 있다.
 부상에 신음하고 있는 삼성은 절실함으로 이승현을 주목하고 있다.
 외국인 투수 코너 시블드가 부상으로 아예 시리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믿었던 원태인마저 26일 경기 이후 어깨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다. '캡틴' 구자욱도 부상으로 타석에 서지 못하는 등 삼성은 최악의 상황에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5차전을 치르게 됐다.
 이승현은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되면서 '2박 3일' 치러졌던 지난 23일 1차전에 구원 등판해 1이닝 2사사구 1실점으로 부진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2차례 선발로 나와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했다.
 리그 레전드인 양현종과 팀의 운명을 쥔 신예 이승현의 좌완 맞대결이 챔피언스필드 마운드를 뜨겁게 달구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